



활자에
담은
온기
활
판
인
쇄

글 이영경

미국의 잡지 '라이프'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100대 사건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 1위는 석유의 발견이나 전구, 컴퓨터 발명도 아닌, 구텐베르크의 성경 인쇄였다. 기록문화를 토대로 발전해 온 인류 문명에서 인쇄술의 등장은 문명사의 대전환이 왔음을 뜻한다. 교육과 지식이 보편화됐고,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구심점이 됐으며, 자유주의 사회로 향하는 교두보가 됐다.



미국으로 들어온 최초의 구텐베르크 성경 인쇄본.
뉴욕 공립도서관 소장.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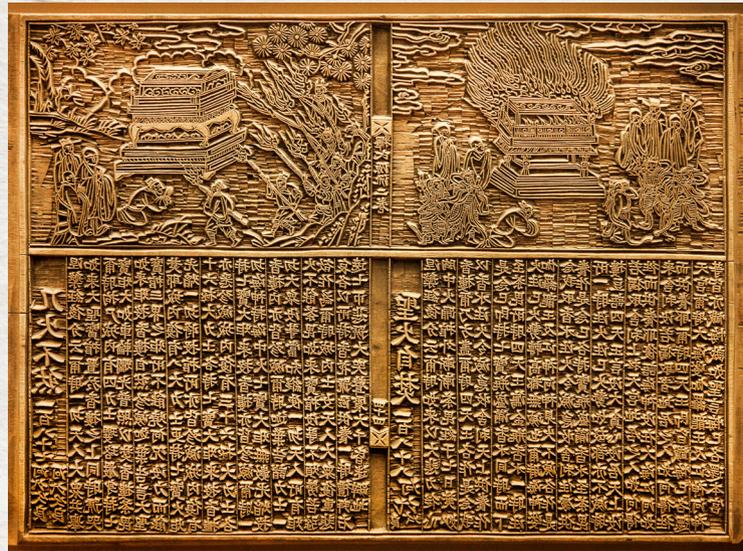
기록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아주 오래 전 책이라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쓴 필사본을 뜻했다. 따라서 평민은 책을 보기 힘들었고 책이라는 것을 찾기 힘든 지역도 있었다. 그러던 중에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1450년에 최초로 고딕활자를 사용해 42행의 라틴어 성서인 '구텐베르크 성경'을 인쇄했다. 인쇄의 도입은 기록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가능케 만든 혁신이었다. 책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가격도 저렴해졌다.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었던 책을 통한 교육과 지식 보급이 일반인들에게도 확대되었으며, 이것은 사회의 변화로 이어졌다. 절대왕정이나 종교적 권위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상들이 인쇄물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유통되면서 시민사회와 자유주의가 대두하게 됐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금속활자의 덕을 톡톡히 봤다. 금속활자 인쇄술이 없었다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나 성경번역 활동 등 민중들이 그 정신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따랐을 것이다. 더불어 책이 대중화되면서 인간이 개인주의가 싹틔고 선형적 사고가 이루어졌다.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개념도 생겼다. 이로 인해 서양이 동양을 앞서게 됐으며 세계를 지배하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이나 앞선 1377년 금속활자에 인쇄된 책이 있으니,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직지심체요절>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먼저 등장한 인쇄술은 목판인쇄술이었다.



목판인쇄는 하나의 판에 조각을 하는 것이므로 굴곡이 없기에 더 선명하고 깨끗했으며 줄도 잘 맞았다.

위대하지만 실패한 우리나라의 활판인쇄

인쇄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목판인쇄술과 금속인쇄술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먼저 등장한 것은 목판인쇄술이다. 이는 글자대로 목판을 판 뒤 종이에 찍어내는 기술이다. 먹만 있다면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 글자라도 틀리면 목판제작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를 보완한 것이 활판인쇄술, 즉 금속활자다. 판 위에 밀랍으로 금속활자를 고정해 종이에 찍는다. 위치를 바꾸는 게 쉽기 때문에 목판보다 여러 종류의 판을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활판인쇄가 대중화되지는 못했다.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사용하던 고려시대에는 글자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글자 수가 매우 방대했으며, 조상들은 목판인쇄가 예술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금속활자 인쇄는 활자

의 크기와 높이를 맞추는다고 해도 완벽하기가 힘들어 종이에 찍었을 때 먹이 고르게 묻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에 비해 목판인쇄는 하나의 판에 조각을 하는 것이므로 굴곡이 없기에 더 선명하고 깨끗했으며 줄도 잘 맞았다. 또한, 지배계층에서 금속활자를 활용해 국민 계몽을 주도하기보다 소수 엘리트층을 양산하여 왕정을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즉 서양보다 몇백 년 먼저 위대한 발명을 해놓고도 사회 전반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민간인이 판매 목적으로 간행한 책을 일컫는 방각본의 출판이 처음 시작된 것은 조선조 중기,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였고, 이마저 금속활자 인쇄가 아닌 목판인쇄로 이루어졌다. 결국 우리는 개화기에 이르러서야 일본을 통해 근대적 활판인쇄술을 받아들임으로써 대중적인 금속활자 인쇄가 진행됐다.

속도에 저항하는 생명력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인쇄방식인 오프셋인쇄(offset printing)는 종이 위에 잉크를 칠하는 방식이다. 반면 활판인쇄술은 종이에 먹물이 스며들도록 글자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다. 글자가 선명하여 가독성이 좋고 눈이 덜 피로하며 생명력이 길다. 오프셋 인쇄로 찍은 책이 100년을 못 버티는 것에 비해 활판인쇄는 400년 정도도 거뜰하다. 대단한 생명력이다. 실제로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국가기록물이나 사상 전집 같은 중요한 문서를 지금도 활판인쇄본으로 보존한다. 또한 사람의 손, 낚, 지형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판인쇄 방식은 활자에 독특한 입체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아름다우면서도 담백하고 자연스럽다. 무엇보다 정성이 담겨 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인쇄술로 답아야 하는 정보

도 넘쳐나는 시대가 됐다. 인쇄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몇 초 만에 수천 장의 종이가 복사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아날로그 방식이 주는 따뜻함을 찾는 이들이 있다. 아름다운 한글이 봉숭아물들듯 종이에 새겨지는 순간의 경건함과 차분함은 책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느끼게 한다. 종이에 묻어나는 돌출감과 명암의 차이, 활자에서 느껴지는 온기 등은 속도에 저항하는 인쇄 방식의 손맛을 톡톡히 보여준다. 활판인쇄로 책 한 권을 만들 때의 시간은 오프셋인쇄의 약 10배, 비용은 무려 20배 정도 더 든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만들고 있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활판인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인쇄방식인 오프셋인쇄(offset printing)는 종이 위에 잉크를 칠하는 방식이다.